‘윤스테이’로 본 나영석 예능은 힐링+α

고즈넉한 한옥·숙박객·출연진 조화… 시청률 10.2%
“친근함 형상화한 뒤 작은 새로움 더해 창의성 확장”

나영석표 힐링 예능은 또 통했다.

깊은 세월과 자연이 어우러진 고택에서 정갈한 한식을 맛보고 다채로운 즐거움을 누리는 콘셉트의 tvN ‘윤스테이’가 첫 방송부터 시청률 8%(닐슨코리아 유료가구)를 넘기며 순항을 시작하더니 지난 15일 방송된 2회는 10.2%(비지상파 유료가구)의 시청률을 기록했다.

“또 여행?”, “또 요리?”, “또 윤여정, 이서진, 박서준, 정유미?”라는 시선도 적지 않았지만 익숙하면서도 조금은 새로워진 프로그램에 시청자들은 또 채널을 고정했다. 여행과 요리에 ‘홈스테이’가 추가됐고, 출연진으로는 배우 최우식이 합류했을 뿐이지만 이 같은 ‘첨가’는 거슬리지 않게 변화를 주는 전략이 됐다.

‘윤스테이’는 ‘윤식당’뿐만 아니라 ‘꽃보다’, ‘삼시세끼’ 시리즈의 연장선이다.

일상에서 벗어나 경치 좋은 곳에서 음식을 해 먹고, 그 과정에서 나오는 진솔한 이야기들을 전한다.

방송가에서는 이 기본 포맷이 분명한 한계도 지녔지만 앞으로도 한동안은 성공할 것으로 본다.

‘윤스테이’에서도 ‘스테이’와 ‘최우식’이 추가된 데 따른 변화는 꽤 신선했다. 인턴사원이지만 뛰어난 영어 실력과 재빠른 행동을 바탕으로 픽업, 객실 안내, 청소, 요리 보조 등 다양한 업무를 소화하는 최우식의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새로웠다. 그가 만들어내는 ‘윤식당’ 멤버들과의 케미(케미스트리, 호흡) 역시 새로운 볼거리였다.

또 고택이라는 새로운 배경은 코로나19 시대 힐링을 선물했고, 한옥의 매력에 빠진 외국인 숙박객들의 모습을 보는 재미도 쏠쏠했다.

이처럼 나 PD 역시 힐링 예능이라는 포맷의 근본적인 힘은 유지하면서 조금씩 새로운 것을 가미하는 전략을 지속할 것으로 예측된다.

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는 17일 “나 PD의 예능이 자기복제가 심하다는 비판이 있지만 잘 들여다보면 디테일하게 새로운 것들을 계속 집어넣으려 애쓴다”며 “조금씩 플러스알파를 했기 때문에 익숙하면서도 새로우니 계속 인기가 있다”고 짚었다.

tvN 예능 ‘윤스테이’ 출연진. (왼쪽부터) 최우식, 정유미, 윤여정, 이서진, 박서준. 연합뉴스

김성수 대중문화평론가도 “대중문화 콘텐츠 자체가 친근함을 꾸준하게 형상화해 놓은 다음에 새로움을 더하는 형태로 만들어진다”며 “‘윤스테이’도 ‘윤식당’과 ‘스페인 하숙’에서 경험한 그림들을 새롭게 조합한 것이니, 게으르지 않게 자기 창의성을 확장해 가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나영석표 예능은 일상을 벗어난 순간의 소중함을 깨닫고, 잊고 살았던 것들을 재발견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좋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봉준호, 베니스 영화제 심사위원장 위촉

칸·베를린과 세계 3대 영화제
봉 감독 “희망과 설렘 가득 차”

봉준호(사진) 감독이 오는 9월 열리는 제78회 베네치아(베니스) 국제영화제 심사위원장에 위촉됐다.

지난 15일 영화제 홈페이지에 따르면 봉준호 감독은 심사위원장 제안을 수락하며 “베네치아(베니스) 영화제의 오랜 역사와 아름다운 영화의 전통에 함께 하게 돼 영광”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봉 감독은 “심사위원장으로서, 더 중요하게는 영원한 영화팬으로서 이 영화제가 선정한 모든 훌륭한 영화들에 존경과 박수를 보낼 준비가 되어 있다”며 “진정한 희망과 설렘으로 가득 차 있다”고 덧붙였다.

알베르토 바르베라 베네치아 영화제 예술감독은 봉 감독이 심사위원장을 맡게 됐다는 소식을 전하며 “오늘날 이 위대한 한국 감독은 세계 영화계에서 가장 진실되고 독창적인 목소리를 내는 사람 중 한 명”이라며 “그의 열정을 우리 영화제에 쏟기로 한 것에 대해 매우 감사하다”고 말했다.

칸, 베를린과 함께 세계 3대 영화제로 꼽히는 베네치아 영화제는 지난해 코로나19 사태 속에 영화제 개최를 포기한 칸 영화제와 달리, 규모를 줄여 오프라인으로 영화제를 치른 바 있다.

최고상인 황금사자상 수상작인 클로에 자오 감독의 ‘노매드랜드’는 미국 골든 글로브와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도 유력한 후보로 꼽히고 있다.

제78회 베니스 영화제는 9월 1일부터 11일까지 열릴 예정이다.

연합뉴스

아이유 컴백 앞두고 ‘셀러브리티’ 선공개

“처음 시도하는 밝고 경쾌한 팝 사운드 장르”
최강 ‘음원강자’ 정규 5집 소식에 관심 집중

정상의 솔로 가수 아이유가 새 정규앨범 발매를 앞두고 오는 27일 선공개곡을 발표한다. >>사진

지난 15일 소속사 이담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아이유는 정규 5집 발매에 앞서 27일 선공개 싱글 ‘셀러브리티’(Celebrity)를 발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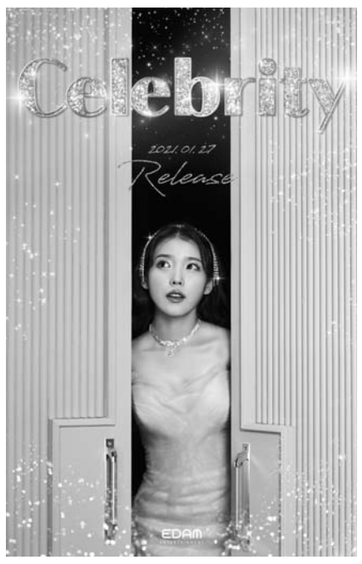
소속사는 신곡에 대해 “듣는 이들에게 활력이 될 만한 밝고 경쾌한 팝 사운드로, 아이유가 처음 시도하는 장르의 음악”이라고 소개했다.

아이유는 이날 공개한 티저 사진에 1980년대 고전 영화 포스터를 연상케 하는 모습으로 등장했다. 분홍색 드레스를 입고 화려하면서도 복고적인 분위기를 연출했다.

아이유가 신곡을 발표하는 것은 지난해 5월 발매한 디지털 싱글 ‘에잇’ 이후 8개월여 만이다. 정규앨범은 2017년 발표한 정규 4집 ‘팔레트’ 이후 약 4년 만이다.

아이유는 지난 9일 ‘골든디스크어워즈’ 디지털 음원 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자리에서 새 정규앨범 발매를 예고하며 “어느 때보다 응원의 이야기를 많이 담고 있는데, 미약하게나마 마음이 많이 지친 분들에게 활기가 될 수 있는 진심을 담은 음악을 들려드리겠다”고 전했다.

아이유는 국내 음악시장에서 대중적으로 막강한 지지를 받고 있으며 발표하는 음원마다 폭발력이 커 독보적인 ‘음원 강자’로 꼽힌다. 그가 오랜만에 발표하는 새 정규앨범에도 관심이 쏠린다.



그는 방탄소년단(BTS) 슈가와 협업해 국내외에서 화제가 된 ‘에잇’, 2019년 11월 발매한 미니 5집 타이틀곡 ‘블루밍’(Blueming) 등으로 지난해 음원 차트를 휩쓸었다. 연합뉴스

영화 ‘미나리’ 3월 개봉 확정

아카데미 연기상 기대감 고조

오는 4월 열리는 아카데미 시상식의 유력한 후보로 주목받고 있는 영화 ‘미나리’가 오는 3월 국내 개봉한다.

한국계 미국인인 리 아이작 정(정이삭) 감독의 자전적 이야기를 담은 영화는 아카데미 시상식을 앞두고 미국에서 열리고 있는 각종 영화제와 시상식에서 수상을 이어가고 있다.

‘미나리’는 1980년대 새로운 희망을 찾아 미국 아칸소로 이주한 한인 가정의 이야기다. 특히 젊은 부부를 돕기 위해 한국에서 온 할머니 순자를 연기한 배우 윤여정은 지금까지 여우조연상 11관왕을 기록하며 한국 배우 최초로 아카데미 연기상을 받을 수 있을지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연예매체 버라이어티는 ‘미나리’가 아카데미 시상식 작품상, 감독상, 남우주연상(스티븐 연), 여우조연상(윤여정), 각본상 등 주요 부문 후보에 오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연합뉴스

팝계 휩쓴 03년생 신예 올리비아 로드리고

데뷔곡 미국·영국 차트 석권

2003년생 신예 싱어송라이터 올리비아 로드리고(사진)가 데뷔곡으로 전 세계 주요 차트를 휩쓸면서 연초부터 팝계를 뒤흔들고 있다.

세계 최대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인 스포티파이가 지난 14일(현지시간) 공개한 최신 차트에 따르면 로드리고의 데뷔곡 ‘드라이버 라이센스’는 글로벌 차트와 미국·영국 차트에서 1위를 석권했다. 미국과 영국 차트에서는 지난 9일부터, 글로벌 차트에서는 10일부터 1위를 지키는 중이다.

아리아나 그란데의 ‘34+35’, 위켄드 ‘블라인딩 라이츠’, 24K골든 ‘무드’ 등 기존의 메가 히트곡을 모두 제치는 이변을 일으켰다.

스포티파이 측은 빌보드를 통해 “‘드라이버 라이센스’가 지난 11일 하루 만에 전 세계적으로 1517만 회 스트리밍 됐다. 캐럴이 아닌 노래로는 일일 최다 기록”이라고 밝혔다. 다음날 이 곡은 1701만 회 스트리밍 되며 이 기록을 자체 경신했다.

빌보드 등 외신은 ‘드라이버 라이센스’가 다음 주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인 ‘핫 100’에서도 1위를 차지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분위기다.

10대 가수의 데뷔곡이 핫 100 정상을 밟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2019년 당시 18세였던 빌리 아일리시가 ‘배드 가이’로 이 차트 1위를 거머쥔 바 있지만, 데뷔곡은 아니었다.

‘드라이버 라이센스’는 로드리고가 지난 8일 발매한 데뷔곡으로 갓 면허를 딴 여자가 운전을 하다 문득 헤어진 연인이 떠올라 그를 그리워하는 내용을 담은 팝 발라드 곡이다. 연합뉴스

KBS1	KBS2	MBC	JIBS/SBS	EBS1
6: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광장 7:35 KBS 뉴스광장 제주 7:50 인간극장 8:25 아침마당 9: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9:45 KBS 뉴스 제주 10:00 중계방송 2021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11:40 팔도밥상 스페셜	6:00 생활의 발견 스페셜 6: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7:00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1부 8:00 KBS 아침 뉴스타임 8:15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2부 9:15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3부 10:00 누가 뭐래도(재) 10:40 지구촌 뉴스 11:00 암행어사 조선비밀수사단(재)	6:00 MBC 뉴스투데이 1부 6:25 MBC 뉴스투데이 2부 7:20 MBC 뉴스투데이 제주 7:50 TV매거진 해피플러스 8:50 밥이 되어라(재) 9:30 930 MBC 뉴스 9:55 중계방송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11:45 백파더 요린이 레시피	6:00 모닝와이드 1부 6:25 모닝와이드 2부 7:20 JIBS 뉴스 7:35 모닝와이드 3부 8:35 불새 2020 9:10 좋은 아침 10:00 중계방송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11:40 살맛 나는 오늘	7:30 뽀롱뽀롱 뽀로로 8:00 딩동댕 유치원 9:15 핫도그랑 만들어볼까요 9:40 우리집 유치원 12:25 지식채널e 14:45 도라도라 영어나라 15:45 몬카트 16:15 올리 앤 문 17:00 EBS 뉴스 17:30 티시태시 19:00 위 베어 베어스 20:35 아주 각별한 기행
12: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12 13:00 네트워크 공동기획 문화스케치 13:50 재난탈출 생존왕 스페셜 14: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2 14:30 보물섬(재) 15:20 콘텐츠 안테나(재) 16:00 사사건건 17: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17:30 탐나는 제주	13:2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13: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15:00 KBS 뉴스타임 15:1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15:30 TV 유치원 16:00 세상의 모든 다큐(재) 16:50 다큐멘터리 3일(재) 17:50 통합뉴스룸 ET	12:00 12 MBC 뉴스 12:20 시크릿 쥬쥬 별의여신 12:50 뽀뽀뽀 친구친구 13:20 헬로키즈 글로벌 동물 뉴스 13:50 2시 뉴스 외전 15:20 이 맛에 산다 16:00 사색의 공동체 스미다 스페셜 17:00 5 MBC 뉴스 17:15 최충우돌 만국 유람기 캠핑 인 코리아	12:00 SBS 12뉴스 12:25 JIBS 뉴스 12:50 동상이몽2 너는 내운명(재) 14:00 뉴스브리핑 16:00 클릭! NOW 제주 17:00 SBS 오뉴스 17:35 JIBS 뉴스 17:50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재)	**제주 CBS FM 93.3㎒ 90.9㎒** 7:00 김덕기의 아침뉴스 7:20 김현정의 뉴스쇼 12:00 CBS낮종합뉴스 12:05 찬양이 있는 숲길 13:30 생명의 샘 15:00 CBS 뉴스 17:05 시사매거진 제주 18:00 CBS 저녁종합뉴스 18:25 김종대의 뉴스업 21:35 라디오강단 22:05 백원경의 가스펠 아워
18:00 6시 내고향 19:00 KBS 뉴스 7 제주 19:40 우리말 겨루기 20:30 누가 뭐래도 21: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9 22:00 가요무대 22:50 더 라이브 23: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라인	18:30 2TV 생생정보 19:50 비밀의 남자 20:30 축구야구말구 21:30 암행어사·조선비밀수사단 22:10 암행어사·조선비밀수사단 22:40 개는 훌륭하다 1부 23:15 개는 훌륭하다 2부	18:10 생방송 오늘 저녁 19:10 밥이 되어라 19:50 MBC 뉴스데스크 1부 20:45 MBC 뉴스데스크 2부 21:20 안싸우면 다행이야 1부 21:55 안싸우면 다행이야 2부 22:40 제발 그 남자 만나지 마요 23:20 제발 그 남자 만나지 마요 23:55 백파더 편집판	18:50 네모세모 19:50 SBS 8 뉴스 20:30 JIBS 8 뉴스 21:00 생활의 달인 1부 21:30 생활의 달인 2부 22:00 동상이몽2 너는 내운명 1부 22:40 동상이몽2 너는 내운명 2부 23:20 동상이몽2 너는 내운명 3부	**KCTV** 7:00 KCTV 뉴스 7:30 배워봅서 관광중국어 9:00 KCTV 뉴스 9:30 KCTV 다큐스페셜 10:30 배워봅서 관광중국어 12:30 KCTV 시청자세상 15:00 KCTV 뉴스 17:00 KCTV 뉴스 20:00 KCTV 다큐스페셜 21:00 KCTV 종합뉴스 21:50 배워봅서 관광영어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TBN 제주교통방송 제주시 FM 105.5㎒ 서귀포시 FM 105.9㎒

KBS ☎ 064)740-7331 / MBC ☎ 064)740-2432 / JIBS ☎ 064)740-7800 / KCTV ☎ 064)741-7723 / 제주CBS ☎ 064) 748-7400

오늘의 운세 18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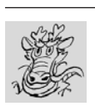
김종상 지단(知旦) 작명역학 원장
경기대 평교원 교수(010-5233-6136)

36년 하는 일이 풀리고 마음에 근심이 사라진다. 48년 귀인의 도움으로 매출이 증대되고 이익 발생. 60년 신경쇄약, 스트레스 받을 일이 생긴다. 대인 관계를 활용하라. 72년 부친이나 배우자 덕으로 내가 빛나고 명예를 얻는다. 84년 현실이 힘이 들어도 참고 노력하면 좋은 결과가 있게 된다.

37년 작은 이득이 있고 좋은 소식도 들려온다. 49년 문서운이 길하니 찬스가 오면 포착하라. 61년 방해자가 생기니 유언비어를 조심하고 경솔한 행동은 손해를 본다. 73년 추진업무가 지체되고 재물지출이 따르니 자금관리 철저. 85년 취업이나 진학의 운이 길하며 생산과 활동이 늘어나 매출 증대. 이익창출.

38년 모든 일은 나눌수록 나에게는 힘이 된다. 50년 신경이 예민해지고 스트레스를 받는다. 송사에 유의하라. 62년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있다. 부부 불화. 배려하는 마음 필요. 74년 직장이나 업무에 문제가 발생하고, 하는 일이 지체되거나 다툼이 생긴다. 86년 경쟁상대가 나타나서 바쁘나 능률은 떨어진다.

39년 모임이나 친구가 나를 찾으니 외출하게 된다. 51년 여성에겐 문서상 이익이, 자녀에게는 혼사문제로 분주한 하루다. 63년 일이 없으면 무력감이 찾아온다. 75년 외출이나 활동성이 늘어나고 바쁘고 분주하다. 자녀문제 걱정. 87년 뜻하지 않은 약속이 생기거나 소개팅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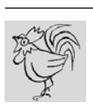


40년 자녀의 집을 방문하거나 갈 곳이 생긴다. 52년 도와주는 만큼 돌아오니 먼저 베푸는 마음이 필요. 64년 생산이 매출로 연결된다. 이익이 발생하니 적극적으로 활동하라. 76년 친구나 동료와의 만남이 있다. 무리한 언행은 화를 부르니 주의하라. 88년 마음에 여유와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도 중요하다.

41년 수입이 늘어나고 전문직은 바쁜 일이 생긴다. 53년 새로운 구상이나 계획하는 일이 원만하게 진행되니 추진하는 것도 좋다. 65년 지나친 언행이 관재수를 부르고 업무에 지장을 주니 말조심. 77년 강한 나의 주장과 독설이 부부불화와 가정의 혼란을 가져온다. 89년 지출이 따르고 외모에 신경쓰게 된다.

42년 소송 또는 관재수가 오니 다툼, 시비는 금물. 54년 업무과다로 피곤이 누적되고 건강 악화. 66년 탐재의 성향이 강해 화를 부를 수 있으며, 투기는 신중해야. 78년 추진하는 일이 지체되고 하자가 발생하니 침착하게 계획을 재수립 검토. 90년 급할수록 돌아가야 한다. 여유로운 마음이 필요.

43년 부모님이나 배우자의 일로 재물이 지출되며 돈 문제로 고민을 한다. 55년 오늘 현실이 어려워도 내일을 준비하는 행동이 더 중요하다. 67년 내가 우선이며 최고라는 마음은 스트레스를 준다. 배려와 양보가 필요한 때. 79년 게으름은 칭찬을 받지 못한다. 91년 투자로 사업장을 확장하려고 한다.



44년 자기고집으로 인한 재물 지출이 생긴다. 무리한 카드 사용은 자제. 56년 친구나 동업자의 다툼이 있을 수 있다. 68년 윗사람과 다소 신경전이 생기니 자중할 것. 80년 직장이나 업무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휴식 필요. 92년 급하고 답답한 마음은 가정의 불화를 만들 수 있다. 여유있는 마음가짐이 필요.

45년 동창 또는 친목이 있거나 봉사로 기쁨을 나누면 좋다. 57년 재물 지출이 생기니 과소비는 금하고, 부부 불화하니 조금씩 자제 필요. 69년 하는 일에 권태가 온다. 81년 반길반흉이 있으니 오후 늦게 약속이 생기면 정중히 거절하라. 93년 부모의 건강이나 돈 때문에 집안에 우환이 생기니 가정사에 신경써야.

46년 건강에 이상이 오니 관절과 치아관리 필요. 58년 문서관련 업무에 하자가 발생하니 철저히 검토. 중요 계약은 다음으로 미루라. 70년 지나친 기대나 공짜는 내게 부담이 된다. 남의 것을 욕심내지 말것. 82년 윗사람의 도움이 있거나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일이 생긴다. 94년 자만하면 되던 일도 안되는 법.

47년 답답하던 일이 풀리거나 거래성사가 있다. 59년 계획을 세우고 창업을 하고 싶어한다. 71년 한가지 일이 마무리가 될 때까지 포기하지 말 것. 전문지식이 필요함을 느낀다. 83년 재물에 대한 욕구가 강해지며, 몸이 늦게까지 분주하고 할 일이 많다. 95년 활동이 많아지고 몸이 사방으로 분주하다.